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오전 8시

○ 장소 : 뉴서울호텔 2층 송죽

○ 참석 :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나도선(여성생명과학기술인포럼 대표), 박옥희(이프 사장), 서미영(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이유정(민변 여성위원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은영(외대 법대 교수), 전현희(변호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직무대행),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진행 실무 :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부장

■ 안건토의

(1) 추천위원 섭외 현황 점검(2003년 11월 30일 현재 점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 김현자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이송희 신라대교수, 박원순 변호사, 박옥희 이프 사장, 장재선 문화일보 기자,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명숙 변호사, 김윤수 전남대교수, 이세중 변호사,

- 유권자연맹에서 김길옥 (유권자연맹 수석부회장, 전남 사회복지학회장)을 추천하여 추천위원으로 받기로 하다.

=> 총 12인으로 구성

(2) 후보추천 활성화 방안 논의

1) 각 분야별로 후보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분야별 책임자와 할당을 정하기로 하다.

- 법조계 : 이윤정, 전현희

- 학계 : 정현백, 이은영, 조현옥 (10명)

- 노동 : 이철순(5-6명)

- 장애 : 여성연합, 여장연(3명)

-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 전체 운영위원이 모두 추천하되, 여성연합(20명), 유권자연맹(10명)이 책임을 맡음

- 문화·언론 : 박옥희(5명)

- 보건·의료 : 전현희 5명
 - 과학계 : 나도선(3-5명)
 - 여성CEO : 박옥희(여경총, 21세기여성CEO포럼, 여성경제인협회 등 에
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CEO 5명 이내)
- ==> 12월 2일까지 협의 완료 후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2) 추천기간 연장 : 현재 추천이 부진하고 추천양식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12월 6일까지 2차 등록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다.

(3) 운동방식에 대한 논의(논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

1) 여론화 방식

-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하기 전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후보추천운동을 여론화하고, 아래로부터 여성대중들의 참여하에 후보추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후보자 리스트 발표를 기점으로 추천인을 가시화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왔는데, 저명한 추천인이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점보다는 대중의 참여하에 아래로부터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최근의 흐름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후보자 리스트 확정 전에 맑은여성정치네트워크의 운동과 후보자 추천 활동을 크게 홍보하고,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배정되어야 한다.
- 위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 리스트 발표 전에 언론이 받을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언론에서 그리 받을 것 같지 않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전담 실무자도 없는 상태이고,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에서 실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큰 일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다.

2) 정당에 여성후보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식

- 좀더 공격적인 관점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리스트를 각 당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리스트를 각 당이 적어도 50%이상 받지 않으면 각 당의 후보자 리스트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리스트는 여성운동 관점에서 검증된 여성들을 선정한 것인데, 각 당의 후보들이 이를 50%도 채우지 못했다면 그 리스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공세적으로 각 당을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 위의 방식이 잘못하면 여성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판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리스트 전달은 결과적으로 각 정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줄 것이므로 처음부터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과할 수도 있다.
- ==> 제기된 논의점에 대해 다음 운영위 회의 때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다.

나. 사업내용

- 홍보

- Oh my news와 daum miz net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후보자 추천 및 정치참여 운동에 대한 릴레이 기사 작성 및 온라인 캠페인 활동,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배너 달기 등을 타진하기로 함.
- 아침 여성프로그램 및 시사프로그램에 기획 언론보도를 요청하기로 함.
- 후보자 추천 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하기로 함.
- 운영위원들이라도 최근 정치국면에 대해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한나라당사 앞 피켓팅 등)-> 정치개혁연대에서 진행하면 맑은넷도 함께 이름을 연명하거나, 총선여성연대 등의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후보자 추천 사업과 별도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향후 검토하기로 함
- 여성재단 광고협조 요청인, 주요 여성인사들에게 추천에 대한 안내 메일 발송, 여성매체 및 기타 언론에 홍보 강화 등은 여성연합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함.

==>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까지 실무적 차원에서 가능한 수위의 일이 어느정도인지 타진후 사업안을 제출하기로 하다.

(4) 기타 논의

- 1) 운영위원 보강 : 최보은씨를 운영위원에 추가하기로 하다.

(5)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 1) 날짜 : 2003년 12월 2일(화) 오후 3시/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 2) 안건 :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함. 정치일정을 확인하여 사업일정을 재논의하고, 3차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실무 가능성을 타진하여 정리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정치 일정 확인 : 여세연에서 담당하기로 함)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오전 8시
- 장소 : 뉴서울호텔 2층 송죽
- 참석 :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나도선(여성생명과과학기술인포럼 대표), 박옥희(이프 사장), 서미영(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이유정(민변 여성위원장),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은영(외대 법대 교수), 전현희(변호사),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직무대행),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 진행 실무 :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부장

■ 안건토의

(1) 추천위원 협의 현황 점검(2003년 11월 30일 현재 점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윤후정, 김현자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이송희 신라대교수, 박원순 변호사, 박옥희 이프 사장, 장재선 문화일보 기자,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명숙 변호사, 김윤수 전남대교수, 이세중 변호사,

- 유권자연맹에서 김길옥 (유권자연맹 수석부회장, 전남 사회복지학회)을 추천하여 추천위원으로 받기로 하다.

==> 총 12인으로 구성

(2) 후보추천 활성화 방안 논의

- 1) 각 분야별로 후보 추천을 독려하기 위해 분야별 책임자와 할당을 정하기로 하다.

- 법조계 : 이유정, 전현희
- 학계 : 정현백, 이은영, 조현옥 (10명)
- 노동 : 이철순(5-6명)
- 장애 : 여성연합, 여장연(3명)
-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 전체 운영위원이 모두 추천하되, 여성연합(20명), 유권자연맹(10명)이 책임을 맡음
- 문화·언론 : 박옥희(5명)

- 보건·의료 : 전현희 5명
 - 과학계 : 나도선(3-5명)
 - 여성CEO : 박옥희(여경총, 21세기여성CEO포럼, 여성경제인협회 등 에
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CEO 5명 이내)
- ==> 12월 2일까지 섭외 완료 후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다.

2) 추천기간 연장 : 현재 추천이 부진하고 추천양식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12월 6일까지 2차 등록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다.

(3) 운동방식에 대한 논의(논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

1) 여론화 방식

- 후보자 리스트를 발표하기 전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후보추천운동을 여론화하고, 아래로부터 여성대중들의 참여하에 후보추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후보자 리스트 발표를 기점으로 추천인을 가시화하면서 활동을 본격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왔는데, 저명한 추천인이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점보다는 대중의 참여하에 아래로부터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최근의 흐름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후보자 리스트 확정 전에 맑은여성정치네트워크의 운동과 후보자 추천 활동을 크게 홍보하고,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배정되어야 한다.
- 위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자 리스트 발표 전에 언론이 받을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언론에서 그리 받을 것 같지 않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 전담 실무자도 없는 상태이고, 개인별 네트워크 수준에서 실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큰 일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다.

2) 정당에 여성후보 리스트를 전달하는 방식

- 좀더 공격적인 관점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리스트를 각 당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리스트를 각 당이 적어도 50%이상 받지 않으면 각 당의 후보자 리스트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의 리스트는 여성운동 관점에서 검증된 여성들을 선정한 것인데, 각 당의 후보들이 이를 50%도 채우지 못했다면 그 리스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공세적으로 각 당을 압박하는 전술이 필요하다.

- 위의 방식이 잘못하면 여성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비판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리스트 전달은 결과적으로 각 정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줄 것이므로 처음부터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과할 수도 있다.
- ==> 제기된 논의점에 대해 다음 운영위 회의 때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다.

나. 사업내용

- 홍보

- Oh my news와 daum miz net에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후보자 추천 및 정치참여 운동에 대한 릴레이 기사 작성 및 온라인 캠페인 활동,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배너 달기 등을 타진하기로 함.
- 아침 여성프로그램 및 시사프로그램에 기획 언론보도를 요청하기로 함.
- 후보자 추천 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하기로 함.
- 운영위원들이라도 최근 정치국면에 대해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한나라당사 앞 피켓팅 등)-> 정치개혁연대에서 진행하면 맑은넷도 함께 이름을 연명하거나, 총선여성연대 등의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후보자 추천 사업과 별도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향후 검토하기로 함
- 여성재단 광고협조 요청인, 주요 여성인사들에게 추천에 대한 안내 메일 발송, 여성매체 및 기타 언론에 홍보 강화 등은 여성연합에서 계속 추진하기로 함.

==>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까지 실무적 차원에서 가능한 수위의 일이 어느정도인지 타진후 사업안을 제출하기로 하다.

(4) 기타 논의

- 1) 운영위원 보강 : 최보은씨를 운영위원에 추가하기로 하다.

(5)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 1) 날짜 : 2003년 12월 2일(화) 오후 3시/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하다.
- 2) 안건 : 사업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함. 정치일정을 확인하여 사업일정을 재논의하고, 3차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실무 가능성을 타진하여 정리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정치 일정 확인 : 여세연에서 담당하기로 함)